

제5. 지옥명호품

(1) 그 때 보현보살마하살이 지장보살에게 말씀하기를,

『인자시여, 원컨대 천룡팔부와 미래·현재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서 사바세계 염부제 죄고 중생이 업보로 받는 지옥의 이름과 악한 과보를 받는 일들을 말하여서 미래세 말법 중생으로 하여금 이 과보를 알게 하소서.』

(2) 지장보살이 대답하기를,

『인자시여, 제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과 대사(大士:보현보살)의 힘을 이어받아 지옥의 명호와 죄업으로 받는 과보를 간략히 말하겠나이다. 인자시여, 염부제의 동방에 산이 있으니, 이름은 철위(鐵圍)라고 하는데 캄캄하고 깊어서 해와 달의 빛이 없으며 거기에는 이른바,

큰 지옥이 있으니 이름이 극무간(極無間)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대아비(大阿鼻)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사각(四角)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비도(飛

刀)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화전(火
 箭)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협산(夾
 山)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통창(通
 槍)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철거(鐵
 車)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철상(鐵
 床)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철우(鐵
 牛)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철의(鐵
 衣)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천인(千

刃)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철려(鐵
 驢)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양동(洋
 銅)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포주(抱
 柱)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유화(流
 火)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경설(耕
 舌)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좌수(剝
 首)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소각(燒
 脚)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담안(陷

眼)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철환(鐵丸)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쟁론(諍論)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철수(鐵銖)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다진(多瞋)이라 하나이다.』

(3) 지장보살이 또 보현보살에게 말씀하되,

『인자시여, 철위산 내에는 이와 같은 지옥의 수효가 한도 끝도 없나이다. 이 밖에 또 지옥이 있어 규환(叫喚)지옥, 발설(拔舌)지옥, 분노

(糞尿)지옥, 동쇄(銅鎖)지옥, 화상(火像)지옥, 화구(火拘)지옥, 화마(火馬)지옥, 화우(火牛)지옥, 화산(火山)지옥, 화석(火石)지옥, 화상(火床)지옥, 화량(火梁)지옥, 화응(火鷹)지옥, 거아(鋸牙)지옥, 박피(剝皮)지옥, 음혈(飲血)지옥, 소수(燒手)지옥, 소각(燒脚)지옥, 도자(倒刺)지옥, 화옥(火屋)지옥, 철옥(鐵屋)지옥, 화랑(火狼)지옥 등이 있나이다. 이 지옥들 속에는 각각 또 작은 지옥들이 있는데 하나나 둘인 것도 있고, 혹은 셋이나 넷인 것도 있으며, 백이나 천인 것도 있어서 그것들의 이름도 각각 다르나이다.』

(4) 지장보살이 또 보현보살에게 말하기를,

『인자시여, 이는 모두 남염부제에서 악을 행한 중생의 업력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업의 힘이란 심히 커서 능히 수미산을 대적하고 큰 바다보다 깊어서 능히 성도(聖道)를 장애하므로 중생들은 설마 조그마한 악이라 하더라도 죄가 없다 하여 가벼이 하지 말아야 하옵니다. 또한 죽은 후에는 털끝만한 것이라도 과보가 있어서 아버지와 자식같이 지극히 가깝다 하여도 그 길이 각각 달라 비록 서로 같이 만나더라도 대신 받을 수가 없으므로 제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어

서 다음에 지옥에서 죄고 받는 일을 대략 말하오리니 바라건대 인자시여, 잠깐 제 말을 들으소서.』

(5) 보현보살이 말하기를,

『나는 비록 옛부터 삼악도의 죄보를 알고 있지만 인자는 말씀하소서. 후세 말법시대의 모든 죄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인자의 말씀을 듣고 불법에 귀의하게 하고자 함이옵니다.』

(6) 지장보살이 말하기를,

『인자시여, 지옥에서 죄업으로 받는 과보는 이러하옵니다.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혀를 잘라

소로 하여금 갈게 하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을 빼어
 야차가 먹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몸을 끓는
 가마솥 물에 삶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에게 벌정계 달
 군 구리쇠 기둥을 안게 하며,
 어떤 지옥은 죄인에게 맹렬한 불
 무더기가 쫓아 다니며,
 어떤 지옥은 온통 찬 얼음뿐이
 며,
 어떤 지옥은 끝없는 똥오줌이며,
 어떤 지옥은 빈틈없이 화살이 날
 으며,
 어떤 지옥은 많은 불창이 찌르
 며,

어떤 지옥은 가슴과 등을 치며,
 어떤 지옥은 손과 발을 태우며,
 어떤 지옥은 쇠뱀이 감으며,
 어떤 지옥은 무쇠 개에 쫓기며,
 어떤 지옥은 무쇠 나귀에 끌리게
 하나이다.

(7) 인자시여, 이러한 업보로 감옥
 마다 각각 백천 가지의 형벌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것은 모두 구리
 요, 쇠요, 돌이요, 불 아님이 없으
 며, 이 네 가지 물건은 여러 가지
 업행으로 느끼는 것이옵니다. 그러
 나 지옥의 고통받는 일을 자세히
 말한다면, 한 지옥 가운데서도 다시
 백천 가지의 고초가 있으니, 더구나

많은 지옥이야 말하여 무얼 하겠나
이까.

제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
들고 인자의 물으심을 받들어 대략
말씀드린 것이 이와 같사오나, 자세
히 설명해드리자면 겁이 다하도록
하여도 마치지 못하겠나이다.』

제6. 여래찬탄품

(1) 그 때에 세존께서는 온몸으로
대 광명을 놓으사, 백천억 항하사
모래와 같은 모든 불세계를 두루
비추시면서 큰 음성을 내시어 모든
불세계의 일체 모든 보살마하살 및
천룡귀신과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
들에게 널리 이르시길,

『들으라. 내가 이제 지장보살마하
살이 지방세계에서 가히 생각하고
생각할 수 없는 대자비의 위신력을

나투어 모든 죄고 중생을 구호하는 일에 대하여 칭찬하고 찬탄함을 들으라.

내가 멸도한 연후에 너희들 모든 보살마하살 및 천룡귀신들도 널리 방편을 지어서 이 경을 지킬 것이며,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 고를 여의게 하고 열반락을 느끼게 하라.』

(2) 이렇게 세존께서 말씀하시니 회중에 이름이 보광이라 하는 보살이 있어, 보광보살이 공경히 합장하며 부처님께 사뢰어 말씀드리되,

『이제 세존께서는 지장보살에게 불가사의한 큰 위신력이 있음을 찬

탄하사오니, 세존께서는 미래세의 말법시대 중생을 위하여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에 이익을 주는 인과를 말씀하시어 모든 천룡팔부와 미래세의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게 하옵소서.』

(3) 그 때 세존께서 보광보살과 사부대중들에게 이르시길,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내가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에 복덕으로써 이익되게 하는 일을 간단히 말하리라.』

(4) 보광보살이 사뢰어 말씀드리되,

『예,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즐거이 들겠나이다.』

(5) 부처님께서 보광보살에게 이르시길,

『미래의 세상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이 지장보살마하살의 이름을 듣는 자와, 혹은 합장하는 자, 찬탄하는 자와 예배하는 자, 생각하고 사모하는 자, 이러한 사람은 30겁의 죄를 초월하리라.

(6) 보광보살이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혹은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혹은 돌·아교·철·금·은·동·철 등으로 이

보살의 상을 조성하여 한 번이라도 우러러 예배하는 자는 백 번이나 33천에 나서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설령 천상의 복이 다하여 인간으로 태어날지라도 오히려 국왕이 되어서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니라.

(7) 만약 어떤 여인이 여인의 몸을 싫어하매 정성을 다하여 지장보살의 형상이나 흙이나 돌이나 구리쇠·무쇠 등으로 만든 동상에 공양하되, 날마다 열심히 하여 물러남이 없이 항상 꽃·향·음식·의복·비단·당번·돈·보물 등으로 공양하면 이 선여인은 이 한 번 여자 몸의 보가

다하고는 백천만 겁에 다시 여인 있는 세계에 나지 않게 되니, 어찌 다시 여인의 몸을 받겠느냐?

다만 자비원력으로 중생을 제도 하기 위하여 스스로 받는 여자의 몸을 제외하고는 이 지장보살을 공양한 힘과 지장보살의 공덕의 힘을 입는 연유로 이 사람은 백천만 겁에 다시는 여자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8) 보광보살이여,

만약 어떤 여인이 있어 추하고 병이 많은 것을 싫어하며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기를 한 식경만이라

도 한다면, 이 사람은 천만 겁 중에 받을 몸의 모양새가 원만하고 온갖 질병이 없을 것이며, 이 추한 여인이 만약 여자의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백천만억 겁을 항상 왕녀나 왕비가 되거나, 재상이나 명문집안의 큰 장자의 딸이 되어 단정하게 태어나고, 모든 모양새가 원만하리라.

이와 같이 지장보살께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면 이와 같은 복을 얻으리라.

(9) 보광보살이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모든 음악을 지으며, 노래하며,

찬탄하고, 향과 꽃으로 공양하고, 또 이를 남에게 권하면 이러한 무리는 현재 이 세상에서나 미래의 세상에 있어서 항상 여러 신들이 밤낮으로 수호하여서 악한 일은 전혀 귀에도 들리지 않게 하나니, 어찌 모든 횡액을 직접 받는 일이 있겠느냐.

(10) 또 보광보살이여, 미래 세상에 만약 악인이나, 악신·악귀 등이 있어서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 형상에 귀의하여 공경하며, 공향하고 찬탄하며 우리러 예배함을 보고 혹 망령되게 꾸짖고 헐뜯거나, 공덕이나 이익이 없다고 비방하거

나, 혹은 이를 들어서 비웃거나, 혹은 돌아서서 그르다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르다고 하거나, 혹은 여러 사람들과 같이 그르다고 하거나 하는 등 만약 한 생각만이라도 꾸짖고 훼방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러한 사람은 현겁의 천불이 멸도하신 뒤까지도 훼방한 죄보로 사뭇 아비지옥에 떨어져 매우 중한 죄보를 받을 것이니라.

뿐만 아니라 이 겁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아귀보를 받게 되며 또 천겁을 지나고도 다시 축생보를 받게 될 것이며, 또 천겁을 지나고서 비로소 사람 몸을 받게 되는데, 비록 사람의 몸을 받아도 빈궁하고

하천하여 이목구비 등 육근을 갖추지 못하고 많은 악업이 그 몸에 맺혀서 곧, 또 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11) 그러므로 보광보살이여,

다른 사람이 공양 올리는 것을 비방하고 헐뜯기만 하여도 이러한 죄보를 받거늘 더구나 나쁜 소견을 내어서 불법을 직접 훼방하고 파괴함이야 말해 무얼 하랴.

보광보살이여,

만약 미래의 세상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오래 병상에 누워서 살려고 하여도 죽으려고 하여도 모두 마음대로 안 되고, 혹 꿈에는 악귀

나 또는 집안 친족과 험악한 길을 헤매며, 혹 도깨비에 홀리고 귀신과 함께 놀고 하여, 이와 같이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깊어짐에 점점 몸이 여위어져 잠자다가도 괴로워 소리치며, 처참하고 괴로워하는 자는 이것은 모두 다 업장으로 죄업의 가볍고 무거움을 정하지 못하여 혹은 수명을 버리기도 어렵고, 혹은 병이 나을 수도 없게 되니 이것은 속된 남녀의 눈으로는 이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12) 이러한 때는 마땅히 모든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이 경을 높은 소리로 한 번 읽거나 혹은 그 병자

가 아끼는 것을 혹은 의복·보배·장원·사택이건 간에 그걸 놓고서 병자 앞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저희들 아무개 등은 병자를 위하여 경전과 불상을 모신 앞에 이 모든 물건들을 올리며, 혹은 경이나 불상 앞에 공양하며, 혹은 불·보살의 형상을 조성하며, 혹은 탑이나 절을 만들며, 혹은 등을 밝히며, 혹은 상주대중에 보시하겠습니다.」라고 하며 이렇게 세 번을 병자가 알아듣도록 하라.

(13) 만약 병자의 모든 의식이 흠어지고 숨기운이 다한 자라면 1일 내지 2일, 3일, 4일에서 7일에 이르

도록 다만 높은 소리로 이 일을 말하고 경을 읽을지니라.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목숨이 다한 연후에 숙세의 허물과 무거운 죄가 오무간에 떨어질 죄라도 영원히 해탈함을 얻어서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숙명을 알게 될 것이니, 어찌 하물며 스스로 이 경을 쓰거나 혹은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거나, 혹은 스스로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거나, 남에게 권유하여 그렇게 하거나 한다면 그 공덕으로 어찌 큰 이익을 얻지 않으리오.

(14) 그러므로 보광보살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독송하거나

한 생각만이라도 이 경을 찬탄하고 이 경을 공경하는 자를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백천방편으로 이들에게 권하여서 정근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한다면, 능히 현재와 미래에 백천만 억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게 되리라.

(15) 그리고 또 보광보살이여, 만약 미래의 세상에 모든 중생들이 혹 꿈에 귀신이나 여러 가지 형태를 보되, 혹은 슬피하고 혹은 울며, 혹은 조심하고 혹은 탄식하며, 혹은 두려워하는 것이 나타나면 이는 일생이나 십생 또는 백생·천생 과거세의 부모나 형제·자매·남편이나

아내 등 권속이 악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디에 구원해 줄 복된 힘으로 구원을 얻을 희망이 없으므로 불가불 속세골육에게 호소하여 방편을 지어 악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16) 보광보살이여,

너는 그대의 신력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시켜서 모든 불·보살의 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이 경을 읽게 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서 읽게 하되, 세 번이나 혹은 일곱 번을 읽으면 그러한 악도의 권속들이, 마땅히 해탈을 얻고 몽매(꿈속) 중에는 다시 나타나지 않으리라.

(17) 또 보광보살이여, 만약 미래의 세상 가운데에 여러 하천한 무리들이 있어 혹은 종이 되며, 내지는 모든 자유를 잃은 자들이 숙세의 업보라는 것을 깨닫고 참회를 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우러러 예배하면서 7일 동안 보살의 명호를 염하여 만 번을 채울 것이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의 과보(果報)가 다한 후에는 천만생 동안 항상 존귀한 몸으로 태어나며, 다시는 삼악도의 고통을 겪지 않으리라.

(18) 보광보살이여,
미래세의 염부제에서 바라문·찰

제리·장자·거사 그 밖의 모든 사람들과 성을 달리하는 종족의 새로 태어나는 자가 남자든 여자든지간에 7일 이내에 이 불가사의한 경전을 읽어 주고, 다시 보살의 이름을 만 번 생각하여 주면 이 어린 아이가 남자거나 여자거나 간에 비록 숙세의 허물이 있어 죄보가 있더라도 문득 해탈을 얻게 되어 안락하게 잘 자랄 것이니라. 또한 수명이 증장되며, 만약 그가 복을 받아 태어난 자라면 더욱더 안락과 수명을 더하게 될 것이니라.

(19) 보광보살이여,
미래세의 중생이 매달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 30일에는 모든 죄를 모아 그 가볍고 무거움을 정하오니, 대개 남염부제의 중생으로서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쓰는 것이 업 아님이 없고 죄 아닌 것이 없는데, 어찌 하물며 방자한 마음으로 산 목숨을 죽이거나 해롭게 하며, 도둑질하고 사음을 하며 망언을 하는 백천 가지의 죄상이라. 만약 능히 십재일에 불·보살님과 모든 성현의 존상 앞에서 이 경을 한 번 읽으면 동서남북 백유순 내에서는 모든 재앙과 고난이 없으며, 그가 사는 집안에 어른이나 어린이가 현재 또는 미래 백천세에 영원히 악도를 여의게 될

것이며, 매달 이 십재일에 능히 이 경을 한 편씩 읽으면 현재의 이 집안에 모든 횡액과 질병이 없고, 의식이 풍족하리라.

(20) 이따므로 보광보살이여, 마땅히 알라.

지장보살은 이와 같은 말할 수 없는 백천만억의 큰 위신력의 이익 되는 일이 있음을 알며, 염부제 중생들은 모두가 이 지장보살에게 큰 인연이 있으니, 이 모든 중생들이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또는 이 경을 석 자나 다섯 자 혹은 한 계송 한 글귀라도 듣는 자는 현재에 특별히

안락함을 얻을 것이며, 미래세 백천 만생 동안에 항상 단정한 몸으로 존귀한 가문에 태어나게 될 것이니라.』

(21) 그 때에 보광보살이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칭찬하고 찬탄하심을 보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다시 부처님께 사죄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 전부터 이 지장보살이 지닌 불가사의한 신력과 큰 서원력을 안 지 오래이오나, 미래의 중생들을 위하여 저들에게 알려서 이익을 주기 위하여 짐짓 부처님께 여쭙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경의 이름은 무엇

이라고 하오며 저희가 어떻게 펴야 하오리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22) 부처님께서 보광보살에게 이르시길,

『보광보살이여, 이 경의 이름은 대체로 세 가지이니

하나는 지장 본원(本願)이요,

하나는 지장 본행(本行)이요,

하나는 지장 본서력경(本誓力經)이니라.

이는 지장보살이 오랜 겁으로부터 내려 오면서 크고 중한 원을 세워서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어왔으니 너희들은 이 원에 의지하여 떠나가도록 하여라.』

(23) 보광보살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합장 공경 예배한 다음 물러갔다.

제7. 죽은 이와 산 이를 이익
케 하는 품

(1) 그 때에 지장보살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뢰어 말씀드리되,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염부제의 중생을 보니 그들이 발을 옮기고 생각하는 것이 죄 아님이 없나이다.

혹 착하고 옳은 이익됨을 만나도 흔히 처음에 낸 마음은 없어지며,

혹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생각에 점점 더 나쁜 짓을 더하게 되니,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무거운 돌을 지고 진흙구덩이를 밟는 것과 같아서 자꾸 지치고 무거워져서 발이 더욱더 빠져 들어가는 것과 같나이다.

만약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그 짐을 대신 덜어서 지거나 혹은 전부 다 져다 주나니, 이 선지식은 큰 힘이 있는 연고로 다시 서로 부추겨 도와주며 권하여 다리를 굳건하게 해 주며, 만약 평지에 다달아서는 나쁜 길을 살펴서 두 번 다시 그런 곳을 지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이다.

(2) 세존이시여, 악을 익히는 중생들은 하찮은 것으로부터 문득 한량 없는 곳까지 이르나니, 이 모든 중생이 이와 같은 습성이 있으므로 임종시에 다달아서는 남녀 권속들이 마땅히 그를 위하여 복을 베풀어서 앞길을 열어 주되, 혹 번개(幡蓋:기)를 달고 등을 켜며, 혹 높은 경을 읽고, 혹 불상 및 모든 성상(聖像)에 공양하며, 내지 불·보살과 벽지불을 염하면서 그 명호를 하나 하나 분명히 불러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하여 그 본식(本識)을 밝히도록 하면, 이 모든 중생의 지은 바 악업은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이 권속들이 그

를 위하여 짓는 인연공덕으로 그가 지은 갖가지의 죄가 모두 소멸될 것이옵니다.

(3) 만약 그가 죽은 뒤 다시 7·7일 안에 능히 여러 가지 공덕을 지어 주면 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수승하고 묘한 낙을 받을 것이옵니다. 또한 현재 권속도 이익이 한량없을 것이니 이런 고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천룡팔부와 인간과 인간 아닌 무리들을 대하여 저 염부제 중생에게 권하되, 임종하는 날에 산 목숨을 죽이거나 악한 인연을 짓지 말며, 귀신과 도

깨비들에게 제사하여 구하지 말라고 하나이다.

(4) 왜냐하면, 이 살생하는 일과 내지 귀신에 제사하는 일이 털끝만 큼도 죽은 사람에게 이익됨이 없으며, 악연을 맺어 죄만 더욱더 깊고 무겁게 짓도록 하는 것이옵니다. 그러하오나 설사 내세(來世)나 혹은 현재생에 성현의 명분을 얻어서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더라도, 임종할 때에 권속들이 악한 일을 행하면, 이 죽은 사람에게 재앙과 화가 되어서 이 명을 마친 사람이 여러 가지의 일에 분별을 짓느라고 좋은 곳에 태어나기가 늦어지나

다. 만약 임종하는 사람이 살아 있었을 때 조그마한 선근도 없다면 그 스스로 지은 업에 의하여 악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이에 어찌 살아 있는 권속들이 다시 업을 더 하게 할 것인가?

마치 그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길을 오는데 먹을 것은 떨어진 지 삼 일째요, 짊어진 짐은 백 근이 넘거늘, 문득 이웃사람을 만나서 다시 또 작은 짐보따리를 더 얻어 받게 된 형상으로 더욱더 곤란이 가중되는 것과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보니 염부제 중생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치심 가운데 착한 일

을 한 터럭·한 물방울·한 모래·한 티끌만큼이라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이익을 모두 스스로 얻나이다.』

(5) 지장보살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할 때 회중에 한 장자가 있으니 이름은 대변(大辯)이라.

오래 전부터 무생(無生:남이 없는 법)을 얻고, 장자의 몸을 나투어十方세계의 중생을 교화 제도하는 이 장자는 합장 공경하며, 지장보살에게 묻기를,

『지장보살이여, 이 남염부제의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그의 권속들이 망인을 위하여 공덕을 닦아 주거나 재(齋)를 베풀거나 하여 여

러 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목숨을 마친 사람이 큰 이익을 얻고 해탈을 하게 되나이까?』

(6) 지장보살이 말씀하여 대답하시되,

『장자여, 내가 지금 미래·현재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신력을 이어서 간단히 이 일을 설하노니 장자여, 미래·현재 모든 중생들이 명을 마칠 때 다달아서 한 부처님의 이름이거나 한 보살님의 이름이거나 한 벽지불의 이름이 꺾기에 스치게만 되어도 죄가 있고 죄가 없음을 물을 것 없이 모두 다 해탈을 얻게 되느니라.

(7) 만약 어떤 선남자와 선여인이 살아 있을 때에 착한 일을 하지 못하고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명이 다한 후에 대소 권속들이 갖가지 훌륭한 공덕을 지어서 복되게 하더라도, 칠분의 일은 망인이 얻게 되고 나머지 공덕은 산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 돌아가나니, 이런 연고로 현재 선남자·선여인이 잘 듣고 스스로 닦으면 그 공덕의 전부를 얻을 수 있으리라.

(8) 죽음의 귀신이 기약없이 다다르면 어둠 속을 헤매는 귀신이 되어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7·7일 동안 어리석은 귀머거리 같다가 모

든 사직(司職)에게서 업과(業果)를 변론하여 심사판정이 있고 나아가 업에 의하여 생을 받게 되느니라. 그렇듯 헤아리지 못하는 사이에 근심과 고통이 천이요 만인데, 더구나 모든 악도에 떨어짐이리오.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이 아직 다시 태어남을 얻지 못하고, 7·7일 안에 있을 때 생각생각에 모든 골육권속이 복을 지어 구원해 주기만을 바라다가 이 날(7·7일)이 지난 후에는 업을 따라 보를 받게 되니, 그가 만약 죄많은 중생이라면 천·백 세가 지나더라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며, 만약 그가 오무간죄로 큰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천겁 만겁토

록 영원히 고통이 끊일 새가 없으리라.

(9) 또 장자여, 이와 같은 죄업 중생은 목숨을 마친 뒤에 골육권속이 그를 위하여 재를 지내어 그의 업의 길을 도와주되, 재식을 마치기 전이나 재를 지내는 동안에 쌀뜨물·나뭇잎사귀 등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며,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기 전에는 먼저 먹지 말지니, 만약 이를 어기어 먹거나 또는 깨끗하게 힘쓰지 않으면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이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깨끗하게 힘써서 청정함을 갖추어 부처님과

스님에게 올리면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이 그 공덕의 7분의 1을 얻으리라.

(10) 이러므로 장자여, 염부제의 중생이 능히 그 부모나 권속을 위하여 목숨이 다한 뒤에 재를 베풀어 공양 올리되,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성껏 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다 이익을 얻게 되리라.』

(11)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도리천 궁에 있던 천만억 나유타 염부제의 귀신이 다 한량없는 보리심을 발하였고, 대변장자는 환희심으로 가르

침을 받들고 예배하고 물러갔느니라.

제8. 염라왕중찬탄품

(1) 이 때에 철위산 안에 한량없는 귀왕과 염라천자(閻羅天子)가 함께 도리천에 와서 부처님 계신 곳에 모이니, 이른바 악독(惡毒)귀왕·다악(多惡)귀왕·대쟁(大諍)귀왕·백호(白虎)귀왕·혈호(血虎)귀왕·적호(赤虎)귀왕·산양(散殃)귀왕·비신(飛身)귀왕·전광(電光)귀왕·낭아(狼牙)귀왕·천안(千眼)귀왕·담수(瞰獸)귀왕·부석(負石)귀왕·주모(主耗)귀왕·주

화(主禍)귀왕·주복(主福)귀왕·주식(主食)귀왕·주재(主財)귀왕·주축(主畜)귀왕·주금(主禽)귀왕·주수(主獸)귀왕·주매(主魅)귀왕·주산(主產)귀왕·주명(主命)귀왕·주질(主疾)귀왕·주험(主險)귀왕·삼목(三目)귀왕·사목(四目)귀왕·오목(五目)귀왕·기리실(祁利失)왕·대기리실(大祁利失)왕·기리차(祁利叉)왕·대기리차(大祁利叉)왕·아나타(阿那咤)왕·대아나타(大阿那咤)왕 등 이러한 대귀왕들이 각각 백천의 여러 소귀왕과 더불어 모두 염부제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은 각각 맡은 바가 있고 머물 곳이 있으니, 이 모든 귀왕이 염라천왕과 더불어 부처님의 위신력

과 지장보살마하살의 힘을 받들어 다 함께 도리천에 이르러 한쪽에서 있었다.

(2) 그 때에 염라천자가 꿰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지금 여기 모인 모든 귀왕들과 더불어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장보살마하살의 힘을 받들고, 이 도리천의 큰 모임에 오게 된 것은 저희들이 좋은 이익을 얻기 때문이온대 제가 이제 약간 의문나는 일이 있어 감히 세존께 여쭙오니 세존께서는 자비로써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3)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이르시기를,

『그대는 마음대로 물으라. 그대를 위하여 말하여 주리라.』 하셨다.

(4) 이 때에 염라천자가 세존을 우러러 절하고, 지장보살을 돌아보고는 부처님께 사죄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장보살을 생각하건대 육도 중에 있으면서 백천가지 방편으로 죄고 중생을 제도할 때 피곤함도 괴로움도 모르오며, 이 대보살은 위와 같은 불가사의하고 신통한 힘이 있사오나, 모든 중생들은 죄보에서 잠시 벗어났다가도 오래지 않아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고

있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은 이미 불가사의한 신력(神力)을 지니고 있거늘 어찌하여 중생들은 좋은 데에 의지하여 영원한 해탈을 얻지 못하나이까?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해설하여 주시옵소서.』

(5)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이르시기를,

『남염부제 중생은 그 성질이 억세고 거칠어서 길들이기 어렵고 꺾기 어렵느니라. 그런데도 이 대보살이 백천 겁 동안 하나하나 구출하여서 그러한 중생들을 일찍이 해탈

하게 하였느니라.

저 모든 죄인들이 큰 악도에 떨어진 자까지도 이 대보살이 방편의 힘으로 그 근본 업연에서 구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속세의 일을 깨닫게 하건만, 염부제 중생이 악습을 맺은 바가 중하여서 나왔다가는 다시 들어가곤 하여서 이 보살을 수고롭게 하고, 이 보살이 오랜 겁을 지내면서 제도하여야 해탈하게 되느니라.

(6)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그의 본집을 잃고 잘못하여 험한 길로 들어섰느니라. 그런데 그 험한 길도중에는 여러 야차와 호랑이, 사

자, 구렁이, 독사 따위가 많이 있었느니라. 이 길 잃은 사람이 이 험한 길에 들어서매 잠깐 사이에 이 모든 독한 것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때 많은 술법을 알고 여러 가지 사나운 독 및 야채의 독까지도 잘 풀 수 있는 선지식인이 있어서 이 험로에서 자꾸만 이 험한 길로 들어서려는 길 잃은 사람을 만나,

『이 딱한 사람아, 어찌자고 이런 길로 들어왔는가. 어떤 기이한 술법이라도 가지고 있어 모든 독물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하였다.

(7) 이 길 잃은 사람은 그 말을 듣

고 문득 험로에 들어선 것을 비로소 알고 곧 물러나서 여기에서 벗어나는데, 이 선지식이 그를 이끌어서 험로 속의 여러 악독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하여 편안케 한 연후에 그에게 말하기를,

「딱한 사람아, 이 다음부터는 저 길을 결코 가지 말라. 그 길로 들어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우며 또 목숨까지도 다치게 되느니라。」라고 하였다.

(8) 이 말을 듣고 길 잃은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헤어짐에 다달아 선지식인은 또 말하기를,

「만약 모든 길가는 사람을 보거든 친지이거나 또는 아니거나간에, 또 남자거나 여자거나간에 저 길에는 여러 가지 사나운 독한 것들이 많아서 목숨을 잃는다고 말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죽음을 스스로 취하지 않도록 하라고 한 것과 같느니라.」

이러한 까닭에 지장보살은 대자비를 갖추고 죄고 중생을 구출하여 천상이나 인간에 태어나게 하여서 훌륭한 낙을 받도록 해 주며, 이 모든 죄고 중생들이 업도(業道)의 괴로움을 알아 악도에서 벗어나 영원히 다시는 그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나니, 이것은 저 길을 잃은 사람

이 험한 길로 잘못 들어갔을 때에 선지식인을 만나 이끌려 나오게 되어 다시는 영원히 그런 곳에 빠져 들지 않는 것과 같고, 그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지 말도록 권한다면 자연히 이로 인하여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해탈을 얻게 되고, 다시는 악도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9) 만약 두번 다시 그 길을 밟는다면 아직도 미혹한 가운데에 있는 것이라, 일찍이 예전에 빠졌던 험한 길을 깨닫지 못하고서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처럼 저 악도에 떨어진 중생을 지장보살이 방편의 힘으로

구해내어서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하나, 저들은 다시 돌고 돌아 또 악도에 들어가나니, 그와 같이 만약 업이 중하면 길이 지옥에 빠지게 되어 해탈할 때가 없느니라.』

(10) 그 때 악도귀왕이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께 사죄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 여러 귀왕들은 그 수효가 한량없나이다. 염부제에 있으면서 혹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혹은 사람에게 손해를 주기도 하는 것이 각각 서로 같지가 않사오니 이것은 저희들의 업보이옵니다.

제가 권속들로 하여금 여러 세계

이 험한 길로 잘못 들어갔을 때에 선지식인을 만나 이끌려 나오게 되어 다시는 영원히 그런 곳에 빠져 들지 않는 것과 같고, 그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지 말도록 권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로 인하여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해탈을 얻게 되고, 다시는 악도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9) 만약 두번 다시 그 길을 밟는다면 아직도 미혹한 가운데에 있는 것이라, 일찍이 예전에 빠졌던 험한 길을 깨닫지 못하고서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처럼 저 악도에 떨어진 중생을 지장보살이 방편의 힘으로

구해내어서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하나, 저들은 다시 들고 돌아 또 악도에 들어가나니, 그와 같이 만약 업이 중하면 길이 지옥에 빠지게 되어 해탈할 때가 없느니라.』

(10) 그 때 악도귀왕이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께 사죄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 여러 귀왕들은 그 수효가 한량없나이다. 염부제에 있으면서 혹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혹은 사람에게 손해를 주기도 하는 것이 각각 서로 같지가 않사오니 이것은 저희들의 업보입니다.

제가 권속들로 하여금 여러 세계

를 돌아다니게 하여 보니, 악한 것이 많고 선한 것은 적습니다. 사람의 가정이나 혹은 성읍·취락·장원·방사(房舍)를 지나다가 혹 어떤 남자나 여인이 터럭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거나, 삼보를 공양하는 일산 하나를 달든지 자그마한 향이나 꽃을 가지고 불·보살의 존상 앞에 공양하거나, 혹은 존중한 경전을 독송하거나 향을 사루어 부처님 법문의 한 구절이나 한 계송이라도 공양하면 저희들 귀왕이 이 사람에게 경례하되, 저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같이하며, 각각 큰 힘이 있고 토지를 맡은 모든 작은 귀신들로 하여금 다시 호위하게 하여서

사나운 황액·사나운 병·뜻과 같지 않은 일들이 이 사람의 집 근처에 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사오니 더구나 그런 것이 그 집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나이까?』

(11) 부처님께서 귀왕을 칭찬하시기를,

『착하고 착하다. 너희들과 염라천자가 더불어 이와 같이 능히 선남자 선여인을 옹호하니 내 또한 범왕과 제석에게 일러서 너희들을 지키고 돕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회중에 한 귀왕이 있었는데 이름을 주명(主命)이라 하였다. 주명귀왕은 부처님께 말

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본래 업연이 염부제 사람들의 수명을 관장하고 있사온대, 저들의 날 때와 죽을 때를 제가 모두 맡아서 하오며, 저 본래의 원에 있어서는 크게 중생을 이익되게 하려는 것이오나, 중생들은 제 뜻을 알지 못하고 나고 죽음에 모두 편안함을 얻지 못하나이다.』

(12) 왜냐하면, 이 염부제 사람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간에 나기 전에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집안에 이익이 더하고, 토지신도 한없이 기뻐하면서 아기

와 어머니를 옹호하여 큰 안락을 얻게 하고, 권속도 이롭게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미 아이를 낳은 뒤에는 삼가 살생을 말아야 할 것이온대 여러 가지 비린 것들을 가져다가 산모에게 먹이며, 또한 많은 권속들이 모여 술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노래를 부르고 풍악을 울리고 즐긴다면 모자가 함께 편안하고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나이다.

(13)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때 무수한 악한 귀신과 도깨비들이 비린 내 나는 피를 먹고자 하옵거늘, 제

가 미리 사택(舍宅)토지의 신들로 하여금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여서 편안케 해 주나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락함을 얻으면 마땅히 착한 일을 하여서 여러 토지신들에게 보답하여야 하옵거늘, 도리어 산 목숨을 죽여서 잔치를 베풀곤 하니, 이는 스스로 재앙을 불러서 받는 일이라 산모와 아기가 함께 손상을 입는 것이나이다.

그리고 또 염부제 사람들이 목숨을 마치게 되면 그 사람의 선악은 묻지 않고 그들을 모두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이다. 그런데 더구나 스스로 선근을 닦는다면 저의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 되오니 어
떠하리까.

(14) 그러나 이 염부제에서 선을
행한 사람들도 임종할 때에는 역시
백천이나 되는 악도에 빠진 귀신들
이 부모나 모든 권속의 형상으로
변하여 나타나 망인을 이끌어 악도
에 빠지게 하거늘, 어찌 하물며 본
래부터 악을 지은 자들은 말해 무
얼 하오리까.

(15)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염부제
의 남자와 여자들은 임종할 때에
신식(神識)이 혼미하여 선악을 분간
하지 못하며, 눈·귀로는 아무것도

보거나 듣는 것이 없는데, 만약 그
의 모든 권속들이 마땅히 큰 공양
을 베풀고, 존중한 경을 읽으며, 불·
보살의 명호를 염하면 이러한 좋은
인연이 능히 망인으로 하여금 모든
악도를 여의게 하고, 모든 마군과
귀신들이 흩어져 사라지게 되나이
다.

(16) 세존이시여, 일체 중생이 임종
할 때에 만약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의 명호만 들어도 혹은 대
승경전의 한 구절 한 계송이라도
듣는다면, 제가 이러한 사람들을 살
펴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살생의
죄만 아니라면, 소소한 악업으로 인

하여 악도에 떨어질 자들이 모두 다 해탈을 얻게 하겠나이다.』

(17) 부처님께서 주명귀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대자비로 능히 큰 원을 세우고 생사계 중에서 모든 중생을 보호하는구나. 미래세에도 남·녀 중생이 나고 죽고 할 때 네가 결단코 이 원력에서 물러서지 말고 모두 해탈하게 하여서 안락함을 얻도록 하라.』

(18) 귀왕이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염려하

지 마옵소서. 제가 이 몸이 다할 때까지 생각생각에 염부제의 중생들을 옹호하여서 날 때나 죽을 때나 모두 안락함을 얻도록 하며, 다만 모든 중생이 나고 죽을 때에 저의 말을 믿고 받아 들여서 모두 해탈하여 큰 이익을 얻는 것이 원이옵니다.』

(19) 그 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수명을 맡은 대귀왕은 이미 과거 백천생 동안을 지나오면서 대귀왕이 되어서 나고 죽는 가운데서 중생을 옹호하고 있나니, 이 대귀왕의 자비원력인 까닭에 현재 대귀왕

의 몸을 나타냈어도 실로는 귀신이 아니니라.

앞으로 1백7십 겁을 지나서 주명 대귀왕은 마땅히 성불할 것이니, 그 때 불 명호는 무상(無相)여래이고, 겁의 이름은 안락이며, 세계의 이름은 정주(淨住)이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겁이 되리라.

지장보살이여, 이 대귀왕의 일이 이와 같이 불가사의하여서 그가 제도하는 천상 사람과 세간 사람도 또 그 수가 한량이 없느니라.』

제9. 부처님 명호를 일컫는 품

(1) 그 때에 지장보살마하살이 부처님께 사퇴어 여쭙옵되,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미래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이익이 되는 일을 말하여 생사 중에서 큰 이익이 되도록 할까 하오니, 원컨대 세존께서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지금 자비심을 일으켜서 일체 죄고 육도중생을 제도하고자 하여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려 하니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니라. 마땅히 속히 설하여라. 나는 곧 열반에 들리니 그대의 원을 일찍이 마치게 된다면 나도 또한 현재와 미래의 일체 중생을 근심함이 없으리라.』

(3)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과거 무량 아승지 겁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호는 무변신(無邊身)여래이셨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 명호를 듣고 잠깐

이라도 공경심을 내게 되면, 곧 40 겁 동안에 생사계의 중죄를 초월하게 되옵거늘, 하물며 부처님 형상을 조성하고, 탕화도 모시어 공양하고 찬탄함이야 그 사람이 얻는 복이 어찌 무량무변하지 않겠나이까.

(4) 또 과거 항하사 겁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보승(寶勝)여래이셨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한 번 손가락을 튕길 동안이라도 발심하여 귀의하면 이 사람은 무상도에서 길이 퇴전치 아니하오리다.

또 저 과거 부처님이 계셔서 세

상에 출현하시니 명호는 파두마승(波頭摩勝)여래이셨사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되 귀를 거치기만 하여도 이 사람이 마땅히 천 번을 6육천 가운데 태어나거늘 하물며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을 모심이오리까?

(5) 또 저 과거, 말로는 이루 다할 수 없는 겁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니 명호는 사자후(獅子吼)여래이셨사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의 명호를 듣고 일념으로 귀의하면 이 사람은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만나 마정수기를 만나이다.

(6) 또 과거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현하시니 명호는 구류손불(狗留孫佛)이셨사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절하거나 또 찬탄하거나 하면 이 사람은 저 현겁천불 회중에서 대법왕이 되어서 높은 수기를 만나이다.

(7)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니 명호는 비바시불(毘婆尸佛)불이시라.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나서 승묘한 낙을 만나이다.

(8) 또 과거 무량무수 항하사 겁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현하시니, 호는 다보(多寶)여래이셨사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면 필경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천상에 있으면서 승묘한 낙을 만나이다.

(9)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니 명호는 보상(寶相)여래이셨사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거나 간에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심을 내면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서 아라한의 과보를 얻나이다.

(10) 또 과거 무량 아승지겁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시니, 명호는 가사당(袈娑幢)여래이셨사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1백천 겁의 생사계의 죄를 초월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니 명호는 대통산왕(大通山王)여래이셨사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이 사람은 항하사 부처님의 설법하심을 만나서 반드시 보리를 이룰 것이옵니다.

(11) 또 과거에 정월불(淨月佛)·산왕불(山王佛)·지승불(智勝佛)·정명왕

불(淨明王佛)·지성취불(智成就佛)·무상불(無上佛)·묘성불(妙聲佛)·만월불(滿月佛)·월면불(月面佛) 등 이러한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이 계셨나이다.

(12)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에 일체중생이 하늘사람 또는 사람이거나 혹은 남자나 여인이거나 간에 단 한 분의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여도 그 공덕이 한량없거늘, 하물며 많은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는 것이오리까. 이 중생들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스스로 큰 이익을 얻어 마침내는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옵니다.

(13) 만약 목숨을 마치는 사람이 있어서 그의 집안의 권속들 중 한 사람만이라도 이 사람을 위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 명호만 염하여도, 명을 마치는 사람은 5무간 지옥의 대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보는 모두 다 소멸되을 것이옵니다. 또한 5무간 지옥의 대죄가 비록 극중한 것이어서 억겁을 지나도록 나올 수 없는 것이지만, 권속 중 한 사람이 목숨을 마치는 사람을 위하여서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른다면 이러한 중죄가 점점 소멸되거늘, 어찌 하물며 중생이 스스로 부르고 생각함이겠사옵니까? 중생들은 한 부처님 명호만 생각하고

불러도 한량없는 죄가 소멸되고, 한
량없는 복을 얻나이다.』

제10. 보시한 공덕을 비교하는 품

(1) 그 때에 지장보살마하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업도 중생의 보시 공덕을 헤아려 보건대, 혹 가벼운 자도 있으며 혹 중한 자도 있어서 어떤 이는 일생 동안 복을 누리는 이도 있고, 십생 동안 복을 누